

# 김지하의 후기시에 나타난 심층생태주의의 양상 연구

김 동 명\*

## 차 례

- I. 머리말
- II. 김지하의 후기시에 나타난 심층생태주의의 양상
- III.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지하 시의 주제가 중기 이후 변화한 양상을 두고 저항의식의 변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해명하고자 하였다. 김지하의 후기시를 대상으로 논의한 결과 관계론적 평등성부터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 등 심층생태주의의 양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첫째, 관계론적 평등성의 시로는 관계 파탄의 양상, 평등성, 관계 속의 자기실현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지구생태계 내 존재들은 서로 어울려 하나의 전체를 향해 관계되어 있다는 방향으로 주제가 도출된다. 식물계와 동물계, 인간계, 무기물계까지 상호관계 속에 존재해야 각 개체의 자기실현과 함께 전체 생명현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유기론적 다양성은 유기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개체적 생명과 그들의 상보성, 자기복원력을 지닌 생태계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지구생태계는 유기체인 동시에 자기조절력을 갖춘 생명체이므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환하는 생태계는 계절의 순환, 탄생과 죽음의 순환, 순환하는 지구생태계로 분석되었다. 생명은 각 개체인 동시에 전체로서 시간과 공간의 순환을 통하여 생명현상을 발현한다. 인간과 자연은 우주적 생명 공동체로서 상호 순환하면서 생성되고 소멸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는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안의 형상화로 파악되었다. 김지하 시는 초기부터 배태된 생태주의가 세월이 갈수록 심화되었으며 후기에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 탐구한 결과가 심층생태주의의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주제어 : 심층생태주의,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

## I. 머리말

### 1. 김지하 시와 생태주의

김지하는 한국 시단에 가장 먼저 생태주의의 씨앗을 뿌린 시인일 뿐 아니라<sup>1)</sup> 한국 생태주의 논의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다.<sup>2)</sup> 그는 『黃土』를

1) 김옥동, 「녹색 시와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60쪽.

2)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생명이란 담론이 대중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김지하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사상의 차원이든 문학의 차원이든 마찬가지이다” 남송우, 「김지하 시인의 생명사상과 생명시론」, 『생명시학 터담기』,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0. 65쪽.

기점으로 현재까지 40여 년에 걸쳐 열 권의 서정시집<sup>3)</sup>과 다섯 편의 담시집<sup>4)</sup>, 시선집<sup>5)</sup>을 간행했을 뿐 아니라 철학, 사회, 미학과 관련한 본인의 견해를 발표하고, 그 글들을 묶어 『김지하 전집』을 발간하기도 했다.<sup>6)</sup> 그의 초기 작품이 이원의 대립적 세계와 공생의 일원론적 세계 고찰<sup>7)</sup>, 유신독재에 대한 정치적 투쟁<sup>8)</sup>, 근대성에 대한 부정과 저항<sup>9)</sup>, 죽음 의식<sup>10)</sup> 등 저항 정신으로 주로 다루어졌다면 중기 이후에는 생명사상의 형상화<sup>11)</sup>, 동학<sup>12)</sup> 등 생태주의와 관련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sup>13)</sup>

김지하의 시세계를 생태주의로 논의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그의 시가 80년대 출간 이후 변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80년대 이전의 시들에서는 생명사상이 죽음의 문화에 대한 저항과 혁명의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며, 출간 이후 간행된 『애린』을 기점으로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가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sup>14)</sup> 김지하 시인의 행보를 보

3) 『黃土』(1970), 『애린1·2』(1986), 『검은 산 하얀방』, 『말뚝이 이빨은 팔만사천개』(1991), 『별발을 우러르며』(1994), 『중심의 괴로움』(1994), 『花開』(2002), 『유목과 은둔』(2004), 『절, 그 언저리』(2003), 『새벽강』(2006).

4) 『五賊』(1985), 대설 『南』 전 5권(1991)

5) 『밤나라』(1993), 『모란 위 四編』(1993), 『꽃과 그늘』(1999)

6) 김지하, 『김지하전집1-철학사상』, 『김지하전집2-사회사상』, 『김지하전집3-미학사상』, 실천문학사, 2002.

7) 최원식, 「김지하론-대립과 공생」, 『한국현대시 연구』, 민음사, 1989.

8) 위기철, 「살아있는 문학을 위하여」, 『김지하 그의 문학과 사상』, 세계, 1984.

9) 구모룡, 「근대성을 넘어서」, 『삶의 깊이와 시적 상상』, 민음사, 1995.

10) 김주연, 「눈이 붉은 작은새, 큰 새가 되어」, 『사랑과 권력』, 문학과지성사, 1995.

11) 박애리, 「김지하 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 강찬모, 「김지하 시에 나타난 동학사상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3) 김옥동, 「생태학적 세계관과 문학 장르」,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304-305쪽.

남송우, 「김지하 시인의 생명사상과 생명시론」, 『생명시학 터담기』,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0.

김재홍, 「반역의 정신과 인간해방의 사상」, 『작가세계』, 세계사, 1989. 가을.

성민엽, 「김지하의 문학과 사상」, 『작가세계』, 세계사, 1989. 여름, 95-98쪽.

윤구병·김지하 대담, 「시인 김지하의 사상세계」, 『철학과 현실』, 1990. 봄호.

홍용희, 「김지하 문학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거나 생태계 파괴와 생명 윤리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감안할 때 생명사상, 생태주의라는 그의 화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명 탐구에 관한 시의 주제가 두드러진 중기 이후의 변화를 두고 일부 연구자들은 저항의식의 변절이나 단절이라는 비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sup>15)</sup> 또한 김지하 시인의 생명사상은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한다.<sup>16)</sup> 김지하의 초기시에 이미 생명사상을 배태하고 있었음이 논의되었으나<sup>17)</sup>, 생태주의나 생명사상의 일관된 개념으로 그 변화양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머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14) ‘그의 생태의식은 중기작품으로 분류되는 세 번째 시집 『애린·1』에서 시작되어 점점 동양적 세계관으로 기울어 갔다고 본다.’ 김옥동, 위의 책. 304-305쪽.

‘초기시 『황토』에서 죽음에 대한 대결 구조 혹은 반역적인 정신을 보여 주었다면 『애린』에서는 화해적인 의미로의 전환이자 근원적인 생명의 모습을 보여준다.’ 김재홍, 위의 책. 298쪽.

‘김지하가 보인 투쟁과 이후의 생명탐구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초기는 상대를 극복하고 나의 생명을 살리려는 소아적 생명의식이라면, 후자는 나와 더불어 상대를 살리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대아적 생명의식으로 볼 수 있다.’

남송우, 위의 책. 66-72쪽.

15) “김지하가 신비주의나 정신주의로 추락한 것이 아니냐,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느냐, 변혁운동의 현실에 있어서 전열로부터 이탈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그 무슨 사이비 종교나 등등의 비판을 받았고, 지식층에 형성되었던 광범한 독자군은 그의 생명사상과 고백운동을 비난하며 그를 새 ‘오적’으로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김종철, 「밥을 통해 본 김지하의 생각」, 『김지하- 그의 문학과 사상』, 세계사, 1984.

박인성, 「생명의 세계관」, 『김지하- 그의 문학과 사상』, 세계사, 1984.

최원식, 「김지하론」, 『한국현대시 연구』, 민음사, 1989.

이재현, 「선언에서 고백으로-김지하의 생명사상 비판」, 『말』 5월호, 1991.

최종욱, 「김지하의 생명운동을 비판한다」, 『미술세계』 8월호, 1991.

방현석, 「김지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말』 6월호, 1991.

조정환, 「김지하의 생명론은 역사로부터의 탈주」, 『말』 7월호, 2001.

16) 김옥동, 앞의 책. 304-305쪽.

17) 각주 14번 참조.

이러한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기의 작품을 대상으로 생태주의의 프리즘으로 조망하면서 시기에 따른 생태주의의 변화양상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생태주의는 생명을 포괄하는 개념이며,<sup>18)</sup> 원인과 방안 모색의 차이에 따라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sup>19)</sup> 김지하의 시 또한 이러한 범주와 관련하여 초·중·후기시가 차이를 보인다. 초기시에서 생명과괴의 원인인 인간 계급의 위계로 인한 착취, 억압의 문제가 주로 발견되는 데 비해 후기시에서는 자연에서 포착되는 생명현상과 인간과 자연의 대등한 관계 모색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그의 초기시와 후기시<sup>20)</sup>를 대상으로 단절의 차원이 아니라 연속적인 입장에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를 생태주의로 조망하는 가운데 포착되는 변화양상을 하위 갈래의 생태주의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21)</sup>

- 
- 18) “‘생명시’를 생태주의의 근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본다”  
고현철, 「생태주의 시의 지형과 과제」, 『초록생명의 길』 2, 시와사람사. 2001. 208쪽.
- 19) 생태주의의 하위 갈래는 크게 환경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로 나누어진다. 생태계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환경생태주의는 오염 감소, 심층생태주의가 인식의 변혁을 지향하는 데 비해 사회생태주의는 사회 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  
고현철, 위의 책. 208쪽.
- 20) 김지하의 시세계를 구분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그의 시가 80년대 출간 이후 변모했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전반기-후반기로 구분하는 경우와 전반기(초기), 중반기(중기), 후반기(후기)로 구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3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애린』 1,2의 연작과 『검은산 하얀방』을 중반기로 보고 기준을 잡는다. 이런 구분은 앞 선 연구에서 문제 없이 다루어졌다.  
홍용희, 「김지하 문학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박애리, 앞의 논문. 17쪽.  
그 외의 학술지와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을 보인다.
- 21) 초기 시는 인간 계급의 위계로 인한 착취, 억압의 문제가 생명과괴의 원인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태주의로 논의가 가능하다. 중기 작품은 환경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가 혼재한다고 본다. 후기 작품은 생명의 근원을 탐색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대등한 관계 모색에 집중하고 있어 심층생태주의적 사유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생태주의로 논의된 초기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문 후기 시집 『별밭을 우러르며』와 『중심의 괴로움』, 『花開』, 『유목과 은둔』, 『새벽강』을 대상으로 심층 생태주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의 초·중·후기의 시편 전부를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나, 이를 한꺼번에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글에서는 그의 후기시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김지하 시인의 견해이기도 하고<sup>22)</sup> 심층생태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생명현상의 대표적 특성으로 거론되는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로 유형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후기 작품 23편을 골라 분석할 것이다. 다섯권의 시집에 실린 시는 모두 심층생태주의의 논의가 가능하지만 23편의 시들은 세 가지 주제로 유형화하여 해석하기에 적합한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23편의 시를 대상으로 초기부터 진행된 생태주의의 일관성이라는 전제 하에 후기시의 변별성인 심층생태주의를 파악해낸다면 저항과 혁명 의식의 변절이라는 비판과 김지하 시인의 생태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제자리에서 머문다는 지적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심층생태주의 시학<sup>23)</sup>

문학 이론에 나타나는 생태주의 논의는 자연과학인 생물학을 비롯하여 여러 분과학문의 이론을 차용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왔다. 환경생태주의(Shallow Ecology)<sup>24)</sup>를 시발로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Social

22) “생명은 다양성, 순환성, 관계성과 영성을 그 본성으로 하며 이같은 본성이 잘 통합되는 생명과정에서 삶은 빛나는 것이고, 이른바 생명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지하, 『틈』, 숲, 1995. 90쪽.

23) 김동명, 「이성선 시의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6집, 한국문학회, 2010.12, 299-303쪽 참조.

24) ‘환경’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라는 뜻인 만큼 중심을 상징한 구심적 세계관, 원자적·단편적 세계 인식, 인간과 주변세계를 나누는 이원적 관점이 담겨 있으며 인간 외의 생명체는 배제한다.

Ecology)<sup>25)</sup>, 생태페미니즘(Eco-feminism)<sup>26)</sup>의 순서로 전개되었으며. 환경생태주의는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인간을 위한 환경이 파괴되는데 대한 비판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의 차원에서 인간 개별의 의식개혁을 제시하는 심층생태주의의 지평이 열린 것이다.

심층생태주의의 흐름을 주도한 아르네 네스Arne Naess는 그의 논문 「표피적 생태 운동과 장기적이며 심층적인 생태 운동」<sup>27)</sup>에서 인간의 삶을 위해 공기 오염이나 자원 고갈에 반대하는 ‘환경생태주의’와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의 ‘근원적’이고도 전일적인 존재 방안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심층생태주의’를 구분한다. ‘Deep’은 ‘깊이’ 생각해본다는 의미를

남송우, 「생태문학론 혹은 녹색문학론의 현황과 과제」, 『초록생명의 길』, 시와사람사, 2001. 18쪽.

25) 사회생태주의는 모든 생태학적 문제는 사회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에서 시작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 문제에 접근한다. 사회생태주의는 현대 사회의 문제, 즉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특징으로 야기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생태계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상이다.

머레이 북친, 문순홍 옮김, 「자연철학을 향하여」, 『사회생태론』, 솔출판사, 1997. 59-69쪽.

26) 가부장적 서구 이원론은 여성과 자연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두 개의 대조되는 개념들의 차이로부터 위계를 만들고, 그것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 그 개념들의 쌍은 상호대립적이고 배타적이며 그 관계는 지배-종속적이다. 즉 세계는 남성/여성, 정신/육체, 주체/대상, 자아/타자, 주인/노예, 이성/감정, 문화/자연, 문명/미개, 생산/재생산, 공격/사적, 보편/특수 등으로 대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측항이 우측항보다 우월하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나 구분이 아니고 좌항이 우항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도구화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세계관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고 ‘우월한’ 남성이 결핍되고 열등한 여성과 자연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Warren, Karen J. *Ecological Feminism*. London: Routledge, 1994.(정정호, 「에코페미니즘」, 『탈근대 인식론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신문화사, 1997. 379쪽.에서 재인용) 380-381쪽.

27) Arne Naess,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 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1973), p.95.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1999. 67쪽.

넘어 생태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인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므로, 그 해결 방안은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물권적 평등주의, 다양성과 공생성, 반계급, 자원고갈에 대항한 투쟁, 복잡성, 탈중양화를 부르짖는다.<sup>28)</sup>

카프라는 『터닝 포인트』와 『딥 에콜로지』<sup>29)</sup>의 저자로서 심층생태주의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 지구 생태계 내 개체적 존재는 모두 하나의 그물에 걸려 있으며 창조와 소멸의 율동이 계절의 순환과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물질을 존재케 하는 원리이기도 하다.<sup>30)</sup> 한스 요나스도 물질이 생명을 향해서 “자기조직화함”으로써, 물질에서 생명으로의 이행이 일어났다는 가설을 받아들인다. 그는 “유기체적인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조직 속에서도 이미 정신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신은 그것이 아무리 높은 단계에 이르러도 역시 유기체적인 것의 한 부분으로 남는다”<sup>31)</sup>고 하여 생물계와 무생물계의 관계론적 평등성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러브록은 지구생태계를 가이아로 명명하고 모든 지상의 생물들에게 적합하도록 주변 환경 조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생물조직체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구생태계는 인간의 오장육부와 사지에 해당하는 핵심기관과 부수적 기관을 지니며, 이러한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서 신축과 생성·소멸이 가능하며, 장소에 따라 역할을 달리 한다. 또한, 주

28) 그 당시 네스와 함께 심층생태주의를 주도했던 사람으로 드볼Devall, 세션 Sessions, 스나이더Snyder, 그리제바하Griesebach, 아메리Amery, 포르리트Porritt 등이 알려져 있다.

홍성태, 「생태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이론의 전개」,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4. 91쪽.

29) 카프라, 카렌바흐 공저, 『Deep Ecology』, 1982.(신동춘, 「딥 에콜로지의 이해」, 『시문학』, 시문학사, 1999. 88-91쪽.

30) F. 카프라 지음, 이성범·구윤서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출판부, 1985. 313-314쪽.

31) Hans Jonas,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und metaphysische Vermutungen* (Frankfurt : Suhrkamp, 1994), p.248.

변 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될 때는 자기 제어 시스템을 운용하여 스스로 조절한다.<sup>32)</sup> 지구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생물조직체로 본다는 점에서 관계론, 유기론의 발견과 함께 생태계에 무기물을 포함시킨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희의 역시 생명을 가리켜 개체적 생명체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 하나의 총체적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는 이를 온생명이라 부르며, 개별적 생명체를 개체생명이라 정의한다. 또한 각 개체생명의 입장에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생명이라 부른다. 개체생명의 생존은 온생명의 생존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체생명은 자신들의 보생명과 더불어 온생명으로서의 생존을 유지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지닌 개체로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한다.<sup>33)</sup>

김지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물론 동학, 주역, 기독교, 불교, 원불교, 양명학, 유교, 노장, 단군신화, 무속 신앙, 미륵 사상, 율려(律呂)에 이르기까지 전통 사상과 토착 신앙을 포함하고 최근의 생태 철학과 신과학의 학문적인 성과까지 포괄하며 생명사상을 섭렵했다.<sup>34)</sup> 김지하 사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동학의 생명론 가운데 시천주(侍天主)의 ‘각지불이(各知不移)’<sup>35)</sup>는 전체의 균형을 중시하면서도 개체 하나하나에 더

32) James E. Lovelock, 홍옥희 역, *Gaia* 『가이아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1978』, 범양사, 1990. 202-223쪽.

33) 장희의, 「생명·인간·문명」, 『삶과 온생명』, 솔, 1998. 167-295쪽.

34) 김지하, 『김지하전집1-철학사상』, 『김지하전집2-사회사상』, 『김지하전집3-미학사상』, 실천문화사, 2002.

35) “김지하는 수운 최해월의 시천주(侍天主)를 생명사상의 핵심 사상으로 수용하였다. 시천주는 유기물, 무기물을 막론하고 모든 개별 사물들 하나하나가 대우주 대생명의 표현으로 본다. 시천주에서 시(侍)는 ‘모심’의 의미이며 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불이를 세 단계로 본다. 첫 번째 ‘내유신령(內有神靈)’은 생물, 무생물, 유기물, 무기물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는 자기 안에 신령한 영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시(侍)의 두 번째 해석인 외유기화(外有氣化)는 모든 존재는 지기로 이루어졌으며 스스로의 형태와 생명의 보존·유지를 위해 전 생명체와의 유기적 소통성과 관계성을 통해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해석인 각지불이(各知不移)는 모든 존재가 그 속에 자기 창조와 생성의 원리

많은 중요성을 둔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조화를 위해 각 개인의 근원적인 의식개혁을 제시하는 심층생태주의와 일치한다. 유기물만이 아니라 무기물까지 포함한 우주생명의 끊임없는 생성과정을 생명모델로 인식한다는 점<sup>36)</sup> 또한 심층생태주의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의 요점은 무기물까지 포함한 지구생태계 내 개체적 존재의 가치는 동등하며 서로 관련되어 다양성을 유지한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체적 생명체의 독립적인 순환과 개체적 생명체끼리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이 발현된다고 본다. 따라서 심층생태주의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관계되어 유기론적 다양성이 확보된 가운데 지구생태계가 항상성을 유지하며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 즉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성은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생태주의에서 포착한 생명현상의 대표적 원리이자 대안의 ‘근원적’ 가치관인 셈이다.

한편, 복친을 비롯한 사회생태주의 이론가들은 인간과 자연이 평등하다고 보는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을 비판한다. 그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가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로, 또 그로 인한 생태위기로 전이된다고 본다. 따라서 진정한 생태공동체를 실현하려면 자연 착취로 이어지는 인간 사회의 계층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

---

로서 영을 내재하고 있으며 개개의 생명은 자기 생명활동과 유지를 위해서 전체생명과의 끊임없는 기의 교감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원리와 실상에서 옳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춘성, 「동학의 생명사상과 실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88-96쪽.

- 36) “‘가이아학설’ 아시죠, 여러분. 지구가 단순히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조절하는 생명의 유기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자기 조절능력이 있는 유기체라는 것, 이 설과 함께 지구 전체의 물질을 하나의 신경조직으로, 다핵적인·영성적인 그런 자기 조절능력을 가진 생명체로 보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지하, 『김지하 전집 2-사회사상』, 308-309쪽.

과 자연이 평등하다고 보는 환원주의적 심층생태주의 또한 인간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로 본다.<sup>37)</sup> 그러나 자연생태계의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인간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상적 생태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명현상의 원리를 포착하여 형상화한 심층생태주의적 경향의 작품과 그에 대한 논의는 사회생태주의에서 추구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태공동체 지향과 배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지하는 초기 작품에서 생명 파괴에 대한 사회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생태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반면 그의 후기 작품에서는 생명의 원리를 탐구하는 심층생태주의적 경향으로 현저히 기울었다. 그는 생명 과정을 인간과 우주 자연 간의 관계성, 순환성, 다양성과 영성의 발현으로 보며,<sup>38)</sup> 그의 후기시에는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자연지향성이 집중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심층생태주의에서 지향하는 전일적(全一的)이고도 근원적인 존재방안의 모색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지하의 후기 시에 나타나는 심층생태주의를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로 유형화하여 논의할 것이다. 먼저 관계론적 평등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I. 김지하의 후기시에 나타난 심층생태주의의 양상

### 1. 관계론적 평등성

아르네 네스Arne Naess를 비롯한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생물이건 무생

37) 머레이 북친 저, 문순홍 역, 「생태적으로 사고하자」, 『사회생태론의 철학』, 숲, 1997. 136-192쪽

38) 각주 22) 참조.

물이건 서로 관련된 가운데 평등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sup>39)</sup> 따라서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에 비해 더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없다. 인간이나 단세포로 된 미생물의 위치조차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간주된다. 김지하 시인 또한 그의 산문에서 이러한 사상을 설교했을 뿐 아니라, 그의 작품에서도 각 개체가 서로를 평등하게 인식할 때 생태계의 관계 회복을 전망할 수 있다는 주제가 다양하게 형상화된다.

기다렸으나/먼지 낀 밤하늘에/별은 뜨지 않고/남쪽으로 가는/비행기  
불빛만 지나간다//기다렸으나/꿈꾸는 나무 그림자/자동차 불빛 끝에 사  
라지고//기다렸으나/장마가 오는데도/맹꽁이 울음소리/들리지 않고//기  
다렸으나/기다렸으나//밤 산책길에 흰머리 노인/오늘은 웬일로 오질 않  
는다//여름날 밤 아홉시/목동아파트/홀로 서서/내내 기다리고 또 기다렸  
으나.

—〈기다렸으나〉전문(『花開』-34)

위 시〈기다렸으나〉에서는 자연과 문명이 대립의 구도로 형상화되어 있다. ‘기다렸으나’를 거듭하며 화자가 갈구하는 대상은 “별”이고 “나무”이며, “노인”과 “맹꽁이 울음”이다. 이는 생명현상의 발현과 관련되는 구체적 대상들이며 우주현상과 동·식물과 인간을 표상한다. 반면 “먼지 낀 밤하늘”, 즉 스모그와 “비행기”, “자동차”와 “목동 아파트”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상징물들이다. 위 시에서 화자는 생명의 관계를 간절히 지향하나 과학과 기술의 과도한 발달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그들은 “뜨지 않고”, “사라지고”, “들리지 않고”, “오질 않”음으로써 서로 단절된다. 이는 건축물이나 교통수단 등 과학과 문명의 이기로부터 비롯되는 오염 때문이며 생명현상의 발현에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이다.

39) Arne Naess, *Ibid.* p.67. 문순홍 편저, 앞의 책. 95쪽.

다 가고/나만 남으리//술잎 누렇게 변해/새들 떠나고//길짐승도 물고  
기도/벌레 모두 떠나고//주위의 친구들/하나둘씩 병으로 죽어 없어지고  
//나만 남으리/지구 위에 홀로//지구마저 흙도 돌도/물도 공기도 마저  
다 죽어//나라 이름 붙인/허깨비만 남으리//끝내는/오도 가도 못할 천벌  
처럼/나만 오뚝 남으리

—〈다 가고〉전문(『중심의 괴로움』-22)

시 <다 가고>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파탄으로 인한 생명현상의 와해를 보여준다. 떠남과 죽음의 이미지로 드러나는 생명파괴의 상황은 “다가”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술잎”과 “짐승”과 “물고기”로 표상되는 동·식물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하나 둘씩 병으로 죽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무기물인 “흙도 돌도 물도 공기도 마저 다 죽어” 인간만이 “지구 위에 홀로” 남은 상황은 “오도 가도 못할 천벌”의 도래(到來)로서 지구생태계 전체의 공멸을 의미한다. 지구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관계하는 생명발현을 지향하기보다는 인간중심적 가치관의 실현을 거듭한 결과 인간 또한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다는 비유적 표현인 것이다.

내 몸/어딘가/부서지고 있다//내 마음 하염없이/무너지고 있다//흙이  
죽어가고/풀이 마르고 나무 병들고//새들 울부짖는다/하늘은 구멍 뚫리고/  
산성비 쏟아져 내리고//모두 다 내 몸/나는 병들었다

—〈삶 2〉부분(『花開』-134)

차라리/ 귀신하고라도/함께 있어야 한다(...중략...)혼자서 함께/그것이/  
살아 있음//그것이 또한/한/살림//한은/날이요/온이요/관계이므로.

—〈한 살림〉부분(『새벽강』-18-19)

위 시 <삶 2>에서의 상황은 좀더 심각하다. “흙이 죽어가고, 풀이 마르고 나무 병들고, 새들”이 울부짖을 뿐 아니라 “하늘은 구멍 뚫리고, 산성비 쏟아져 내”린다. 그때서야 화자는 이들이 “모두 다 내 몸”이었음을

깨닫는다. 그 모든 존재들은 서로의 생명을 발현하는 데 관련되므로 너와 나가 따로 분리되지 않으며 다른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화자는 <한 살림>에서 “삶이란/애당초” “혼자”의 몫이지만 “혼자서 함께” 해야 생명현상을 발현할 수 있으니 “차라리 귀신하고라도/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하기에 이른다.

헐벗은 산 가슴 아파//술 누렇게 시들고/새들 떠나고/적막한 산/빈산  
//봄이 와/겨우겨우 피어나는 꽃 한무리를//차마 가여워/못가네/이제 더  
는 못가네//아파트 사이/아스팔트길을/점토록 걷는다네//뉘우친다네.

—<산>부분(『중심의 괴로움』-60)

<산>에서의 화자는 ‘산’으로 표상된 자연의 아픔을 인식하는 태도로 변화한다. 자연과 ‘나’가 동등한 입장임을 인식하고 천지공심(天地公心)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공심(公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분과 차별, 대립의 관계를 넘어 타자와 나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평등의 자아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 시의 화자는 비로소 자연과 나를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새들”조차 떠나버린 산에 “이제 더”는 “못 가”겠다고 “아스팔트길을/점토록” 걸으며 뉘우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김지하 시인이 일찍이 생명의 비전을 열기 위해서 영성적 인간, 우주적 무의식을 가진 인간을 제안했던 바<sup>40)</sup>, 위 시의 화자 안에 자연으로서의 우주적 자아가 실현된 것이다.

잇었는가/잎새가 나를 먹이고/물방울이 나를 키우고/새들이 나를 기  
르는 것//잇었는가/나//오늘도/잎새 속에서/뚫어져라 뚫어져라/나를/쳐  
다보는 것.

—<나 한때>부분(『중심의 괴로움』-105)

40) 김지하, 「울려란 무엇인가」 『김지하 전집-철학사상』 1권, 실천문화사, 2002. 445-452쪽.

시 <나 한때>에서 화자는 좀더 깊이 자연과의 동등한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이해한다. “잎새가 나를 먹이고/물방울이 나를 키우고/새들이 나를 기”른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서로의 목숨이 서로에게서 비롯된다는 인식이야말로 평등하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당위가 된다. 따라서 “잎새 속에서/뚫어져라 뚫어져라/나를/쳐다보는” 존재를 의식하는 이유는 화자가 식물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대등하게 바라볼 때 우주의 생명력, 즉 상대방의 생명력이 자기 안에서 생성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 또한 타인 안에서도 생성된다고 본다면, 평등성의 사유야말로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에 동참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심층생태주의에서 주창하는 관계론의 개념 속에는 각 존재들이 동등한 가운데 ‘자기 실현’의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가 덧붙는다.<sup>41)</sup> 여기서 ‘자기실현’이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세계를 포함한 관계, 즉 ‘큰 자기’ 속에서 나의 ‘작은 자기’를 성숙시켜 가는 것을 뜻한다. 결국 심층생태주의에서 제시하는 ‘생명 중심주의적 평등’이란 모든 생명체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 생명권 속에서라야 각각 자기 실현의 권리를 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 안에 벌어지는/꽃이파리 하나//햇살 비쳐들고/바람 불어오고//별이 오고 또 나비가 오고//흰 구름 흐르다 흐르다/밤이면//푸른 별자리들 기울어/이슬 내리고//사랑은/틈

—<틈 2>부분(『花開』-119)

흙도 물도 공기도 바람도/모두 다 형제라고/형제보다 더 높은/어른이라고/그리 생각하게 되었지요/마음 편해졌어요//축복처럼/새가 머리 위에서 노래합니다

—<새봄·3>부분(『중심의 괴로움』-34)

41) Devall, B. & Sessions, G. *Deep Ecology*(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pp.65~9

위 시 <틈 2>에서 “내 안에 벌어지는/꽃이파리 하나”는 화자인 ‘나’의 자아를 상징한다. 개체적 자아인 ‘나’의 자기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불어오고”, “벌”과 “나비”와 “흰구름”과 “푸른 벌”과 “이슬”까지 지구생태계 전체가 조응해야 한다. 어떠한 존재든지 개체적 생명체가 ‘자기’로서의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동·식물을 비롯한 무기물까지 모두가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진공 속에 “꽃이파리”만 놓여 있다면 꽃으로서의 ‘자기실현’은 불가능해지며 이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된다. 삼라만상이 서로 협력하며 각자가 전체의 관계 속에서 작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생명현상이며 모든 개체적 존재의 생명현상이기 때문이다.

위 시 <새봄·3>에서 화자는 무기물질과 자연현상인 ‘흙, 물, 공기, 바람’을 감각하면서 그들과 좀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노력한다. 그들을 “형제라고/형제보다 더 높은/어른이라고” 인식한다. 무기물들조차 “형제”라 호칭함은 무기물의 자기실현을 인정하는 실천인 셈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화자의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 무기물까지 함께 하는 ‘큰 자기’ 속에서 화자의 ‘작은 자기’가 실현됨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김지하 시에서 형상화된 관계론적 평등성은 관계 파탄의 양상, 평등성, 관계 속의 자기실현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과정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주제는 자연 생태계 내 모든 존재는 동등한 관계이며 모두가 관련될 때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이 가능한 동시에 각 개체의 자기실현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 2. 유기론적 다양성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지구생태계 내 각 개체적 존재는 서로 관련된 가운데 유기적 전체로서 자기 조절력,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이 생명현상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생태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되 어

편 필연성에 따라서 연결된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은 고정된 상태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sup>42)</sup> 이 변화는 새로운 창조성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손상된 것을 복원하는 힘으로도 작용하며 통일성을 지향한다.

물리학자 장회익은 이러한 특성을 온생명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구 생태계 전체를 온생명이라 부르며, 개별적 생명체를 개체생명이라 정의한다. 온생명에서 한 개체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 전체를 한 개체생명의 보생명이라 일컫는다. 개체생명의 생존은 온생명의 생존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체생명은 자신들의 보생명과 더불어 온생명으로서의 생존을 유지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지닌 개체로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한다고 본다<sup>43)</sup>.

우주는 신의 몸//내 죄는 삼라만상을/사랑하지 않은 죄/사랑을 넘어  
차라리/이젠 미물조차 공경하므로//용서 받으라/또한 축복을

—<축복>전문(『花開』-90)

소음 속에 떠오르는/먼지 낀/참나무 한 그루//검은 등걸 속/고요하고  
//면 강물 이끈다/새싹 틔다//내 몸속에/하루 종일/해와 달이 돌고

—<살자>전문(『중심의 괴로움』-62)

위 시 <축복>에서 화자는 “우주”, 즉 지구생태계를 “신의 몸”으로서 온생명으로 인식한다. “삼라만상”은 모두 온생명에 포함되며 “신의 몸”이 된다. 그렇다면 화자가 개체생명일 때 화자를 제외한 나머지 삼라만상, “미물”까지도 온생명의 일부인 보생명이 된다. 지금까지 화자는 각 개체생명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결과 삼라만상 모두를 신의 몸, 즉 온생명으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보생명적 인식도 없었다. 그러나 “이젠” 미물까지도 “신의 몸”인 온생명이며, 동시에 개체생명인 화자 스스

42) James E. Lovelock, 앞의 책, 254쪽.

43) 장회익, 앞의 책, 167-295쪽.

로의 보생명으로 인정하기에 “사랑을 넘어” “공경”할 수 있게 된다. 화자 또한 “미물”의 보생명으로서 “신의 몸”인 지구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신의 몸”인 지구생태계는 화자나 미물을 포함하는 온생명으로서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것이다.

시 <살자>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참나무 한 그루”는 그 “등걸 속”에 멀리서 흐르는 “강물”을 끌어당기고, 그 물을 흡수하고 발산하면서 짝을 튀우고 있을 기른다. “참나무 한 그루”는 “강물”로 표상되는 지구생태계의 보생명과 더불어 온생명인 지구생태계의 생명발현, 즉 탄소동화작용을 함으로써 개체생명으로서의 “참나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에게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화자의 “몸속에” “하루 종일” “해와 달이 돌”며 보생명으로 작용하기에 화자 또한 온생명인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에 참여하며 개체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참나무 한 그루”나 화자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보생명적 관계인 해와 달의 기운을 호흡하거나 물의 흡수와 발산을 통해 자신의 생명현상을 발현하며 온생명인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랑잎 한 잎/마루 끝에 굴러들어도/님 오신다 하소서//개미 한 마리/  
마루 밑에 기어와도/님 오신다 하소서//넓은 세상 드넓은 우주/사람 짐  
승 풀 벌레/흙 물 공기 바람 태양과 달과 별이/다 함께 지어놓은 밥//아  
침저녁/밥그릇 앞에/모든 님 내게 오신다 하소서//손님 오시거든/마루  
끝에서 문간까지/마음에 능라 비단도/널찍이 펼치소서.

—<님>전문(『花開』-46)

작은 꽃 속에/큰 하늘이 피어 있어/법(法)이라 한다/네 작은 담론 안  
에/우주가 요동하는 것/사랑이다//깊은/ 죽음.

—<화염>전문(『유목과 은둔』-218)

위 시 <님>에서 화자는 모든 삼라만상, 즉 지구생태계 내 각 개체 모

두를 ‘님’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그가 받아들인 최시형의 ‘밥 한 그릇’의 사상이 44) 반영된 동시에 심층생태주의가 주창하는 유기론적 특성의 형상화로 볼 수 있다. ‘밥 한 그릇’은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요체로서 “사람 짐승 풀 벌레/ 흙 물 공기 바람 태양과 달과 별이/다 함께 지어놓”은 유기론적 결과물, 즉 보생명의 결정체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먹는 것, “작은 꽃 속에/큰 하늘이 피어”나는 자연의 “법(法)”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자의 “작은 담론 안에/우주가 요동하는” “사랑”, 즉 생명현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의 “깊은/ 죽음”이 “밥”으로 바쳐져야 하며 자신 또한 다른 존재들에게 “님”이자 “손님”이 되어 “밥” 한 그릇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엔/오지奧地가 없다//우리들 마음 안에/심층이 없듯이//너와 나 사이에/깊은 우정 없듯이/사랑 없듯이.(…중략…)“우리는 전국토를 도시로 만들 겁니다.”//단 한 마디에/등골 소름이 끼쳤듯/그때 이미//우리들 마음엔 아예/오지가 없었다/만족하는가?

—<이 나라엔>부분(『새벽강』-69-70)

러브록에 의하면 지구생태계는 모든 지상의 생물들에게 적합하도록 주변 환경 조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생물조직체와 같다.<sup>45)</sup> 여러 기관을 지닐 뿐 아니라, 이러한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서 신축과 생성·소멸이 가능하며, 장소에 따라 역할을 달리 한다. 또한, 주변 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될 때는 스스로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인간이 과학기술이라는 명분으로 지구생태계에 인위를 가하며 획일적으로 개발할 때 지구생태계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자기복제능력, 복원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위 시 <이 나라엔>에서 화자는 다양성의 양상인 “오지奧地”가 소멸

44) 김지하, 「생명」, 『김지하 전집2-사회사상』, 실천문화사, 2002. 44-46쪽.

45) James E. Lovelock, 앞의 책. 248-249쪽.

하는 현상을 두고 탄식한다. 지구생태계를 상징하는 “이 나라”에서 오지가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들 마음 안에/심층이 없”고 “너와 나 사이에/깊은 우정”이 없는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볼 때 “우정”이나 “사랑”이 형상으로 현현되지 않아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심장박동의 순환을 추동하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 위 시에서 화자는 “전 국토” 즉, 지구상의 모든 “오지(奧地)”가 사라지고 “도시”가 대신하는 현상을 이와 마찬가지로 본다. 따라서 화자는 “아예/오지가 없었다/만족하는가?”라고 물으며 획일적인 개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썩은 물도 물은 물//흐르는구나/하늘을 비추는구나/가서/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구나//아니/구름 한 점 어린 것 보니/돌아오겠다//깨끗이 되어  
/또 오고/또 돌아오겠다.

—<삼라만상·1>전문(『별밭을 우러르며』-51)

파괴된 산/오염된 공기/흠어진 삶/이 한복판에서//새싹 돋는다/놀랍  
다

—<나는 지금>부분(『중심의 괴로움』-76)

위 시 <삼라만상·1>에서는 유기체로서의 지구가 스스로 자정하여 회복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지구생태계 내의 모든 개체적 생명체는 다른 장소에서 제각기 존재하는 듯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떤 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더라도 남아 있는 부분의 자정력으로 전체 회복이 가능하다. 시 <삼라만상·1>, <나는 지금>에서 “썩”었던 “물”이 “깨끗”하게 “돌아오”거나 “파괴된 산/오염된 공기”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나는 현상은 지구생태계에 내재된 다양성, 자기복잡성의 원리와 필요성을 함의한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시들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생성하거나 손상된 곳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 개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보생명에 해당하는 다른 개체의 범주는 넓어야 하고 그 종류는 다양할수록 긍정적이다. 다양성이 확보될 때 온생명인 지구생태계의 자기 생성력이나 복원력은 그만큼 신속하고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생명체를 확충하여 생태계 내 ‘존재의 사슬’ 속에 연계시킬 때 “파괴된 산/오염된 공기” 속에서도 다시 “새싹 돋”는 생명현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김지하 시에서 형상화된 유기론적 다양성은 유기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개체적 생명체끼리의 상보성, 자기복원력을 갖춘 생명체로서의 생태계로 파악된다. 자연 생태계 내 각 개체적 생명체는 유기체의 일부로서 다른 개체적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유기체로서의 항상성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다.

### 3. 순환하는 생태계

카프라는 창조와 소멸의 율동이 계절의 순환과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무기 물질도 가상적 입자들의 방출과 흡수를 통하여 순환한다고 본다.<sup>46)</sup> 이는 한스 요나스의 이론에서 반복되며<sup>47)</sup>, 김지하 시인의 산문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항이다.<sup>48)</sup> 그들이 볼 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뿐 아니라, 전일적인 존재의 차원에서도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순환을 거듭한다. 김지하 시인의 시에서 계절의 순환에 관한 탐색을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46) F. 카프라, 이성범·구윤서 옮김, 앞의 책. 313쪽.

47) Hans Jonas,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und metaphysische Vermutungen* (Frankfurt : Suhrkamp, 1994), p.248.

48) “돌도 생성하고 쇠도 자랍니다. 인터벌이 아주 길어서 그렇지 인간의 가시 능력권 밖이니까 그렇지, 생성하고 진동하고 순환하고 팽창합니다. 복제능력이 없다고 해서 살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주 단견입니다”

김지하, 「기우뚱한 균형’에 관하여」, 『김지하 전집2-사회사상』, 실천문화사, 2002. 430쪽.

봄이다/꽃잎 피었다/이파리도 함께 피었다/한여름 같고/목련/진달래  
 개나리/철쭉 라일락 복사꽃 능금꽃/한꺼번에 피었다/이게 무슨/봄인가//  
 먼 우주에서/운석 날아온다는/불길한 소식//강물에는 붕어들/떼죽음/죽  
 음/이게/무슨 봄인가//담배 끊고/찬찬히/내 속/들여다봐야겠다.

—<봄>전문(『중심의 괴로움』-58)

자연의 순환원리에 비추어볼 때 봄에 피어나는 “목련”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돋아난다. 그런데 위 시 <봄>에서 목련화의 “꽃잎”과 “이파리”가 “함께” 피어난다. 뿐만 아니라 “목련, 진달래, 개나리, 철쭉, 라일락, 복사꽃, 능금꽃”이 “한꺼번에 피”어한다. 인류가 편리함과 쾌적함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달을 과도하게 추구한 결과 나타난 부작용으로 계절의 순환에 혼란이 초래되자 식물들도 덩달아 시기도 없이 피고 지는 것이다. 순환 원리가 무너지는 현상은 식물에서 그치지 않는다. 무기물인 강물마저 혼탁해지니 “붕어들”은 떼지어 죽고 “운석”이 날아오는 천재지변이 이어진다.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지 않고 전체 생태계가 교란되자 비로소 화자는 “담배 끊고” 자신을 “들여다봐야겠다”고 자탄한다. “담배”로 표상된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라는 미몽을 반성하고 지구생태계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아침에/저녁을 배운다/대낮에는/밤을 배우고/겨울이면 여름을 배운다  
 //배운다/겨울보리 여름에 먹고/여름쌀 겨울에 먹는 것/천지 이치를 배  
 운다

—<겨울 겨울·6>부분(『별밭을 우리르며』-20)

첫봄 잉태하는 동짓날 자시/거칠게 흠어지는 육신 속에서/쌈물 소리  
 들러라/귀 기울여도/들리지 않는 쌈물 소리 들러라(...중략...)쌈물 흐르  
 는 소리만/귀기울여 귀기울여 들러라.

—<동짓날>전문(『별밭을 우리르며』-45)

위 시 <겨울 겨울·6>에서는 순환원리에 적응하는 화자를 발견할 수

있다. 화자는 “아침에” “저녁을” 기다리고 “대낮”에 “밤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여름”을 기다리며 가지런한 삶을 이어간다. “겨울보리” 여름에 먹고 “여름쌀” 겨울에 먹으며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시 <동짓날>에서의 화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연의 순환원리를 따른다. “첫봄 잉태하는 동짓날 자시”에 “샘물 흐르는 소리만/귀기울여 귀기울여” 들으며 첫 계절, ‘봄’을 맞이하는 것이다.

눈을 뜨면 시커먼 나무등걸/죽음 함께 눈감으면/눈부신 목련/내 몸  
어딘가에서 아련히/새살 돌아오는 아픔/눈부신 눈부신 저 목련.

—<목련>전문(『별밭을 우러르며』-85)

눈부시게 꽃 피는/라일락 밑에는/시체가 있다//시체 썩는 소리 들린  
다(...중략...)하늘에 구름 빛나는/오월 잔치 밑에/변환이 있다/무서운 무  
서운/생명의 변환이 있다

—<변환>부분(『花開』-138)

한스 요나스는 “유기체적인 물질은 가장 낮은 단계의 조직 속에서도 이미 정신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신은 그것이 아무리 높은 단계에 이르러도 역시 유기체적인 물질의 한 부분으로 남는다”<sup>49)</sup>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죽음 또한 생명으로 보는 근거로 변용된다. 물질에도 정신이 내재한다는 이론을 적용한다면 죽음은 다시 생명으로 진화하는 가능성으로서의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은 무의미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현상이 아니라 유의미하며 소망스런 사건이 된다.

위 시 <목련>에서 화자는 살아 있는 것들이 죽음을 통해 그 자신을 다른 살아 있는 것들에게로 돌려주는 순환의 원리를 인식한다. “눈을 뜨면 시커먼 나무등걸”은 죽은 나무등걸이다. 하지만 화자는 그 죽은 듯 “시커먼 나무등걸”에서 “눈부신 목련”의 탄생을 감지한다. “죽음”이 “새

49) Hans Jonas, *Ibid.* p.248.

살”의 근원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화자를 비롯한 인간 또한 죽음을 수용할 때 새 삶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장을 의미한다. 개체적 존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재생하는 가운데 순환하는 것이다.

시 <변환>에서도 “시체”가 “꽃”으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도 삶과 죽음의 순환 원리가 포착된다. “시체”는 썩어서 흙과 하나가 되고, “라일락”은 흙 속에 뿌리를 내려 영양을 공급받는다. 결국 사람이 죽어서 “라일락 꽃”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라일락 꽃” 즉, 식물에 그치지 않는다. 흙은 사람의 생명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죽음이 변환한 물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시에 등장하는 “시체 썩는 소리”는 다른 형태로 변환하려는 “영성”의 순환과정, 에너지의 변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다.

내 목숨은/아득타/별로부터 오셨으니//내 목숨은/가까이/흙으로부터  
풀 나무 벌레와 새들 물고기들/내 이웃들로부터 오셨으니(...중략...)이  
은혜를 갚아야/쫓그러 앉아 흙 위에 돌팍으로 쓴다/기슴팍에 깊이깊이  
새기며 쓴다.//되먹임!

—<되먹임>부분(『花開』-87)

주지하다시피 모든 개체적 생명체는 독립적으로 순환할 뿐 아니라 서로 관련된 하나로서 순환하며 전 우주의 생명활동에 참여한다.<sup>50)</sup> 인간

50) 감지하는 생명을 막힘이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폐쇄적이며 고정적이고 안정적 인 원 속에서의 일정한 반복 순환의 시간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수렴하고 순환 하면서 확산하는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되돌아오며 또한 밖으로 나아가는 안팎이 동시적이면서도, 동시적이 아닌, 아니다 그렇다고 근원적인 숨겨진 질서의 끊임없는 유출로서의 드러난 질서의 끊임없는 자기 변화, 자기 조직화, 자기 수정과 갱신과 차원변화를 반복, 증폭하며 사방 팔방으로, 전 방위로 팽창 확산하고 또한 심층 무의식의 끝없는 그 밑바닥으로 외계 우주의 수천억 개의 무한한 공간으로, 처음도 끝도 없는, 진행하는, 점멸하지 않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과 사물 그리고 천지자연의 관계는 순환의 고리에 걸려 있는 것이다. 위의 시 <되먹임>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숨”을 떨리는 “별”로, “가까이”로는 “흙”과 “풀”로 인해 생성되는 존재로 인식한다. “내 목숨”은 “별”과 “흙”으로 대변되는 “우주”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이들과 함께 “이끌고” 따르는 순환의 과정 속에서 발현된다. 다시 말해, “내 목숨”은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생성의 과정’으로서 “별”이고 “흙”이며, “나무”이고 “벌레”이며, “새들”이고 “물고기들”이다. “우주”와 “내 몸”은 구별해 파악할 수 없으며 지구생태계의 각 개체는 전체와 맞물려 서로 “되먹임”하면서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것이다.

천지부모를 모신/나 또한 천지의 한 부모//나로부터/사람들이 아직은  
/자유자연 지향이라 어설피 알고 있는//새, 풀잎과 나무, 구름과 물과 다  
람쥐들이//이제 새로이/태어나리라//아/푸르른 창조의 새벽/나 또한/다  
시 태어나리라(...중략...)다시 진화하리라/새 오만년의 한/새,//또는/한  
물방울//그리고/한 풀잎으로 나무줄기로//한 구름으로/또 몇 마리의/새  
다람쥐로.

—<재진화(再進化)>부분(『유목과 은둔』-45-47)

내 나이/몇인가 헤아려보니//지구에 생명 생긴 뒤 삼십오억살/우주가  
폭발한 뒤 백오십억살/그전 그후 꿩뚫어 무궁살//아 무궁//나는 끝없이  
죽으며/죽지 않는 삶//두려움 없으라//오늘/풀 한 포기 사랑하리라/나를  
사랑하리

—<새봄·8>전문(『花開』-134)

<재진화(再進化)>에서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통시적인 순환을 거듭한다고 본다. “천지를” “부모”라 인식하며, “나 또한 천지의 한 부모”됨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새/풀잎과/나무/구름과 물과 다람쥐들이”

홍용희, 「생명주의와 한국문학」, 『초록생명의 길Ⅱ』, 시와사람, 2001. 104쪽.

“새로” “태어나며”, “나 또한/다시 진화하”여 “새//또는/한 물방울” “한 풀잎으로 나무 줄기로” 혹은 “구름으로” “다람쥐로” 태어날 것임을 예지하는 것이다. <새봄·8>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내 나이/몇인가 헤아려보니” “지구에 생명 생긴 뒤 삼십오억살/우주가 폭발한 뒤 백오십억살”은 형태를 바꾸어 “죽으며/죽지 않는” “나”, 조상이면서 자손이기도 한 “나”, 영속하는 “나”를 의미한다.

삶과 죽음이 생명현상의 과정으로서 구분될 뿐 따로 분리되지 않음을 인식한 화자는 하찮은 존재들도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각 개체적 생명체, “풀 한 포기조차” 전체로서 하나인 동시에 화자 자신이기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지구 생태계 속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서, 서로 충돌하고 통합하여 새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은 순환론적 생명으로서의 자각을 의미한다. 생물과 무생물의 순환으로 상호 공존하는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이 각 개체적 존재, “나”의 생명현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지하 시에서 형상화된 생태계의 순환은 계절의 순환, 탄생과 죽음의 순환, 순환하는 지구생태계로 요약된다. 지구생태계는 계절의 순환을 따라 생명력이 생성 발현되며, 탄생과 죽음의 순환을 통해 생명현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지구생태계를 이루는 우주적 생명 공동체로서 상호 순환하면서 생명현상을 거듭한다.

### Ⅲ. 맺음말

지금까지 김지하의 후기시에 내재된 심층생태주의를 논의했다. 그 결과 그의 후기시를 응집시키는 주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생명현상의 근원적 원리에 대한 탐색으로 확인되었다.

그의 후기시에 내재된 심층생태주의는 네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카프라, 한스 요나스, 러브록의 가이아, 장회익의 사상을 적용할 때 현실을 반영한 논의와 함께 시인의 의도와 가장 근접한 주제가 도출된다. 김지하의 생태사상이 이들의 이론과 일치하며 작품창작에서 드러나는 주제 또한 후기시로 갈수록 그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김지하의 후기시에 내재된 심층생태주의를 파악하되,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의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관계론적 평등성으로 형상화된 주제는 관계 파탄의 양상, 평등성, 관계 속의 자기실현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이러한 항목으로 논의된 주제는 결국 자연 생태계 내 존재들이 서로 어울려 하나의 전체를 향해 있다는 방향으로 도출된다. 식물계와 동물계, 인간계, 그리고 무기물 질까지 모든 존재는 동등한 관계이며 모두가 관련될 때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유기론적 다양성은 유기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개체적 생명체끼리의 상보성, 자기복원력을 갖춘 생명체로서의 생태계로 나누어 논의되었다. 먼저 지구생태계는 전체로서 하나이며 각 개체적 생명체는 다른 개체와 상보적 관계로서 지구생태계의 생명발현에 동참하며 스스로의 생명현상을 발현한다. 이어 자연생태계는 자기조절력을 갖춘 생명체로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제가 논의된다. 자연 생태계 내 각 개체적 생명체는 유기체의 일부이며 그들이 모여 우주현상으로서의 유기체적 자연 상태가 이루어지니 각 개체적 생명체는 유기체로서의 항상성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하는 생태계는 계절의 순환, 탄생과 죽음의 순환, 순환하는 지구생태계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먼저 생태계는 계절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생성 발현된다는 주제가 논의된다. 또 다른 주제는 탄생과 죽음을 전일적 현상으로서 생명발현의 과정으로 본다. 나아가 생명은 각 개체인 동시에 전체의 부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통섭하며

생성, 소멸, 재생한다. 각 소주제의 순차적인 분석을 거쳐 도출되는 주제는 인간과 자연이 지구생태계를 이루는 우주적 생명 공동체로서 상호 순환하면서 생명현상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 즉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를 드러내는 작품들은 생명현상의 근원과 과정의 형상화로 파악되었다. 23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는 생태계 전체를 유기체적이며 전일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그 관계의 대상인 모든 인간과 자연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동등하며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의 초기시에서 드러나는 지배적 심상이 저항, 또는 혁명이라는 점과 중기 이후에야 두드러진 생명사상의 차이점 때문에 단절이나 변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생명사상 또한 갈수록 심화되기보다는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지하 시인은 애초에 죽음의 문화에 노출되어 생명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감옥생활 이후 자연스럽게 생명사상에 천착했다. 그의 시 역시 이러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창작되었으며, 후기시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 탐구한 결과 심층생태주의적 양상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하, 『별발을 우러르며』, 솔 출판사, 1994.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솔 출판사, 1994.  
김지하, 『花開』, 실천문학사, 2002.  
김지하, 『유목과 은둔』, 창비, 2004.  
김지하, 『새벽강』, 시학, 2006.
- 김지하, 『김지하 전집-철학사상』 제1권, 실천문학사, 2002.  
김지하, 『김지하 전집-사회사상』 제2권, 실천문학사, 2002.  
김지하, 『김지하 전집-미학사상』 제3권, 실천문학사, 2002.  
김지하, 『생명과 자치』, 솔, 1996.  
김지하, 『생명』, 솔, 1992.  
김지하, 『틈』, 솔, 1995.
- 강찬모, 「김지하 시에 나타난 동학사상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권혁범, 「생명사상의 체계화 <생명과 자치>」, 『녹색평론』, 1996, 12  
구모룡, 「근대성을 넘어서」, 『삶의 깊이와 시적 상상』, 민음사, 1995.  
구자희, 「문학생태학의 이론과 실제」,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김용민, 「대안 사회를 위한 꿈」, 『생태문학』, 책세상, 2003.  
김옥동, 「현대시와 생태학적 상상력」, 『현대시학』, 1997, 10  
———,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김주연, 「눈이 붉은 작은새, 큰 새가 되어」, 『사랑과 권력』, 문학과지성사, 1995.  
김춘성, 「동학·천도교 수련과 생명사상 연구」, 한양대학교 철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9.

김춘성,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남송우, 『생명시학 터담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_\_\_\_\_, 「생태문학론 혹은 녹색문학론의 현황과 과제」, 『초록생명의 길』, 시와사람사, 2001.

박애리, 「김지하 시 연구 -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9.

신덕룡, 「생명시의 성격과 시적 상상력」, 『초록생명의 길』, 시와사람, 2001.

신동춘, 「디프 에콜로지의 이해」, 『시문학』, 시문학사, 1999.

신범순, 「천년의 세월에 깎인恨, ‘애린」, 『현대시』, 1993.9

오문환, 『해월 최시형의 동학사상』, 솔, 1998.

오정혜, 「김지하 시에 나타난 생태담론」, 『비평문학』, 제16호, 2002.7.

우찬제, 「소리로 띄우는 우주의 짝, 그 만공의 시학」, 『현대시학』, 1994. 12.

유중하, 「원형의 전설」, 『문예중앙』, 민음사, 1991.5.

윤구병, 「시인 김지하의 사상세계」, 『철학과 현실』, 1990. 봄호

이경숙 외 2인, 「김지하의 생명사상」, 『한국생명사상의 뿌리』, 이화여대 출판부, 2001.

이승훈, 「고통에 접근하는 두가지 방식」, 『세계의 문학』, 1989.9.

이재복, 「몸과 생명의 언어 : 김지하론」, 『현대시학』, 1999.8.

이제현, 「선언에서 고백으로-김지하의 생명사상 비판」, 『말』 5월호, 1991.

이혜원, 「심연에서의 길찾기 ; 김지하와 조정권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정신』, 1992.2.

임동학, 「생성의 사유와 ‘무’의 시학」,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장희익, 『삶과 온생명』, 솔, 1998.

- 정정호, 「에코페미니즘」, 『탈근대 인식론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신문화사, 1997.
- 홍용희, 「김지하 문학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 홍정선, 「연꽃을 드는 싸움 : 김지하의 최근 시」, 『문학과 사회』, 1989.11.
- 최원식, 「김지하론」 『한국현대시 연구』, 민음사, 1989.
- 장자 저, 최효선 역, 「내편-제물론」, 『장자』, 고려원, 1994.
- 머레이 북친, 문순홍 옮김, 『사회생태론』, 솔출판사, 1997.
- Gregory Batesen, 박대식 역,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2000.
- james E. Lovelock, 홍욱희 역, 『가이아』, 범양사, 1990.
- F. 카프라, 이성범·구윤서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출판부, 1985.
- Devall, B, Sessions, Deep Ecology(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 Daniel Botkin, Discordant Jarnonies, A New Ecology for the tyxnty-first century(N.Y.; University Press, 1990).
- Hans Jonas,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und metaphysische Vermutungen (Frankfurt:Suhrkamp, 1994)

<Abstract>

## A Study of Deep Ecological Aspects in later poems of Kim Ji-ha

Kim, Dong-Myeo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criticism on Kim Ji-ha which considers the change of subject matters in his later poems as a betrayal of his earlier protest poems. As a result of discussion on his later poems, these poems were examined in terms of deep ecology including relational equality, organic diversity and cyclic ecosystem.

First, poems of relational equality can be classified into poems with aspects of destroyed relationship, equality and self-realization within a relationship. It is concluded that all beings of the ecosystem of earth are harmoniously connected with one another towards a unity. His poems can be said that the worlds of plants, animals and humans should coexist with one another to enable an entire life cycle as well as self-realization of an individual existence.

A discussion of organic diversity was conducted with a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life as a part of organism, their complementation, an ecosystem with a life containing self-enforcement. Ecosystem of earth is an organism as well as a life with self-regulation so that its diversity must be guaranteed to keep homeostasis.

Finally, cyclic ecosystem in his poems was analyzed as a cycle of seasons, births and deaths, and a cyclic ecosystem of earth. A life is

an individual as well as an entirety which reveals a life cycle through the circulation of time and space. Human and nature also circulate, appear, disappear, die and reappear interactively as a cosmic life community.

Kim's works containing the above three subject matters were understood as a figuration of an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ecosystem. A dormant philosophy of ecology in his earlier poems became more apparent in the course of the years. Consequently the result of his exploration of the origin of life appeared as an aspect of deep ecology in his later poems.

Key Words : Kim Ji-ha, Deep Ecology, Relational Equality, Organic Diversity, Cyclic Ecosystem.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